

일본 중세의 마을 속을 거닐어보자!

활기 넘치는 민중의 생활과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던
가마쿠라·무로마치 시대(14~15세기 경)

일본 중세의 마을 속을 거닐며 그 시절의 민중들과 만나보자!



< 제2전시실 >



달여 만든 차~
 달여 만든 차 있어요~
 풍로 뒤쪽의 숯바구니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숯으로 계속 달여주고 있으니
 언제든지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Q. 센지모노우리의 도구를 관찰해보자.

숯바구니는 어디에?
 풍로의 어느 부분에 숯을 넣어야
 음료를 달일 수 있을까?

또, 풍로 옆에 있는 통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센지모노우리의 도구를 잘 관찰해보고
 무엇이 들어갈 지 상상해보자!

<센지모노우리 (煎じ物売り)와 잇푸쿠잇센 (一服一銭)>

16세기 말, 일본 무로마치시대에 쓰여진 『七十一番職人歌合』에는 음료를 파는 상인으로서 센지모노우리 (煎じ物売り)와 잇푸쿠잇센 (一服一銭)이 그려져 있다.

그들은 차를 비롯해 비파잎·진피·말린생강을 달여 만든 것 등을 팔았는데, 잇푸쿠잇센과 센지모노우리의 음료는 품질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도 차이가 있었다. 잇푸쿠잇센의 음료는 한 잔(一服)에 1文(一銭), 센지모노우리의 음료는 그것보다 싼 값에 팔렸다.

치바대학 단기유학생 최은영 (한국 동덕여자대학교)



치바 대학교 국립 역사 민속 박물관 유학생 프로젝트

International Student Project, Chiba University and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치바 대학교 국제 교육 센터와 국립 역사 민속 박물관(역사 박물관)은, 2009년부터 치바 대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워크 시트는 역사 박물관의 종합 전시회를 활용한 수업에서 유학생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워크 시트의 내용은 유학생들이 1년간 공부한 성과를 개개인의 이해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여기 봐! 이 톱 엄청 크지?
 이번에 중국에서 들어온 "큰 톱" 이라고!
 기존엔 나무에 흠을 파서 일일이 쪼개야 했는데,
 이 톱은 훨씬 빠르고 편하다니까?
 이번 일이 끝나면 하리마국(播磨国)으로 갈 건데,
 거기서도 이 톱이 큰 활약을 할거야, 하하하!

<일본 중세 직인의 삶>

주로 비농업적인 일의 종사자였던 일본 중세의 직인(職人)들은, 천황 혹은 권세가, 사원 등의 기관에서 봉사하며 평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공물의 의무를 면제받았다. 직인(職人)들은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여러 기관에 봉사했으며, 이동에 관한 교통세를 면제받는 특권도 가졌다.

Q. '큰 톱' 을 사용하기 전, 나무를 자를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주변에 전시된 그림들을 잘 관찰해보자.

저기, 혹시 시장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 마을은 처음이라서 길을 잘 모르겠네요,
 짚신도 다 떨어져서 사야 하는데...

<물건의 유통>

일본 중세의 사회를 막연하게 농업사회, 자급자족 사회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타 지역·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물건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렌자쿠상인과 같은 소규모의 행상부터 배 등을 이용한 대규모의 상단까지 다양한 형태의 상인들이 물건의 유통을 담당했다.



Q.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을까?

Q. 앞쪽에 있는 시장모형을 잘 관찰해보고 렌자쿠상인을 위해 짚신가게를 찾아주자.



Q. 시장모형 안에서 '일하는 여성들' 의 모습을 찾아보자.

안녕? 이건 은어라고 하는 생선이란다,
 저기 오오이강에서 잡았지,
 오늘 잡은 것들은 특히 통통해서 머리에 이고 오는데 무거워 혼났다가?
 아까 지나가던 백포 파는 언니랑 부채 파는 언니도 다 사갔어~ 오늘 저녁은 은어 어때?



<일하는 여성들>

가마쿠라·무로마치시대에는 생선, 떡, 백포(白布), 면, 부채, 향 등을 취급하는 많은 여성 직인(職人)과 상인들이 활발히 활동했다.

